

목포 20대 코로나19 확산...광주·목포 방역 '비상'

동선 역학조사 방역...거주 가족·친구 3명 검사 음성 29일 국내 확진자 105명 증가한 9583명, 152명 사망

태국 여행 후 귀국한 목포시 거주 20대 남성이 지난 28일 전남의 9번째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남성은 귀국 후 마스크를 쓰고 유스퀘어 광주버스터미널, 광주신세계백화점 구찌 매장, 광주 북구 일대를 거쳐 27일 목포에 내려온 뒤 친구 3명과 목포시 일원 식당과 마트, PC방 등을 들렀다.

이에 따라 전남도 등 방역당국은 이 남성이 거쳐간 동선을 따라 심층 역학조사와 방역에 나섰다. 함께 거주한 아버지와 여동생, 동행한 친구 3명 모두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번 확진자는 진단검사 의무대상은 아니었으나, 전남도가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와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리자 목포시의 문자 안내에 따라 27일 오후 진단검사를 실시했다. 28일 양성 판정을 받은 뒤에는 즉시 강진의료원으로 즉시 입원 조치됐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지난 28일 백화점 전 층을 방역소독했으며, 서구청 보건행정과와 공동으로 CCTV를 통해 이동경로를 파악한 결과 이 확진자의 26일 백화점 내 다른 이동 경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신세계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직원을 확인하고 즉시 2주간 자제 격리를 통보했다. 다만 확진자가 계속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접촉한 직원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백화점측이 그동안

철저히 방역한 만큼 서구 보건행정과 등 보건당국이 정상 영업을 해도 무방하는 의견을 내 29일 정상 영업을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긴급 발표를 통해 "정부보다 더 강화된 조치로 해외 입국자에 대해 특별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 9번째 확진자 발생 브리핑
김영록 전남지사가 29일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전남 9번째 확진자 발생에 따른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다. 전남도는 지난 27일 '해외입국자 특별 관리 행정명령'을 발동해 3월 2일 이후 입국한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자진신고와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바 있다. 현재 77명을 집중관리중이다.

한편 29일 현재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모두 9583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부터 105명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42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서울은 만민중앙교회 집단감염 영향 등으로 20명이 새로 확진됐고, 경기 15명, 인천 7명 등이다.

25명은 대구·경북에서 나왔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사망자는 총 152명으로 전날 같은 시각보다 8명이 추가됐으며, 완치해 격리에서 해제된 확진자는 전날 222명이 늘어 총 5033명(완치율 52.5%)이 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여송 광주일보 발행인 신문협회 부회장 4번째 연임

회장에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



김여송 부회장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27일 정기총회와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여송 광주일보 발행인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지난 2014년 부회장에 선임된 이후 네 번째 연임이다.

신임 제47대 회장에는 홍준호 조선일보 발행인이 뽑혔다. 임기는 2년이며, 이병규 전 회장은 이사 겸 고문으로 추대됐다.

김 발행인은 한국외국어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광주일보에서 정치부장·편집부국장 등을 지냈다. 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정부에 걸쳐 14년 동안 청와대 출입, 전국 일간지 가운데 최장기 출입기자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호남지역 언론인으로는 유일하게 방

북 취재했다. 호남지역언론인으로는 김남중, 김종태 전 광주일보 회장에 이어 2014년 3번째로 한국신문협회 부회장에 선임된 바 있다. 서울대동양사학과를 졸업한 홍 회장은 1983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정치부장, 편집국장, 경영기획실장 및 신문협회 부회장을 지냈다. 신문협회는 김 발행인 이외에도 동아일보 임재정 대표이사 부사장 겸 발행인, 매일경제 손현덕, 매일신문 이상택 발행인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이사 21명, 감사 2명도 선임됐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시, 아이돌보미·대중교통 종사자 마스크 지원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이돌보미와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 등에 마스크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 등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 중인 아이돌보미들에게 마스크 1만장을 긴급 지원했다.

광주에서 활동 중인 아이돌보미는 1000여 명으로, 지난해 2400여 가구에 2만 3000여 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아이돌보미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휴원·휴교로 인한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확대 시행되고 있다.

강영숙 광주시 여성가족국장 직무대리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공적 서비스는 모두 중단됐지만,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확대되고 있다"며 "돌보미는 물론 이용 가정 구성원 모두의 안전을 위

해 마스크를 긴급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또 중국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인 광주우시, 다렌시, 우한시 등에서 보내온 마스크 32만7000매 중 6만매를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에게 긴급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된 마스크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지하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 1만3000여 명이 사용한다.

시는 앞서 지난 2월부터 버스, 택시, 지하철 방역소독 등을 위해 마스크 9만1180개, 손세정제 2만6046개, 차량소독제 2680통, 소독용 분무기 4550개, 체온계 30개 등 각종 방역물품을 비롯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시설, 택시차량, 지하철 시설 소독 등을 지원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붕어빵 부부' 서울 만민교회 연관성 조사

전남 7·8번째 코로나19 확진 무안 만민교회 예배 참석

방역당국이 코로나 19 감염이 발생한 서울 구로구 만민중앙교회와 무안 만민교회와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어서 전남지역 7·8번째 확진자인 붕어빵 판매상 부부의 감염원이 파악될지 주목된다.

29일 전남도, 목포시에 따르면 전남도가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라 목포경찰에 조사를 의뢰한 결과 확진자 부부가 지난 5일 무안 만민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예배에는 서울 등지에서 온 신도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됐다.

29일까지 구로 만민중앙교회에서는 목사와 직원 등 10명 이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목포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신도 중

일부가 무안 만민교회 예배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감염 연관성을 찾는 등 심층 조사에 들어갔다.

전남도와 목포시는 확진자와 주변인 진술, 거주지 주변 CCTV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감염원과 접촉자 파악에 주력해 왔다.

확진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로 이동 경로 확인에 어려움을 겪자 지역사회 확산에 대한 시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만민중앙교회 관련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검사자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목포와 무안 만민교회의 집단예배를 금지하고 도내 7번·8번 확진자인 목포 붕어빵 판매상 부부에게 심층 역학조사에 협조하도록 지난 26일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에 명창환 행안부 공동체과장 임명



전남도는 30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명창환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장을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임명한다. 명실장은 순천교과와 전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6년 지방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전남도 관광정책과장과 식품유통과장, 안전행정국장, 순천 부시장 등을 역임했다.

전남에서 20년간 재직하던 뒤 지난 2016년 행정안전부로 전출한 후에는 정부서울청사관리소와 주소정책과장, 지역공동체과장을 거쳤다. 지역공동체과장 재임 시 마을기업 육성 및 사회적경제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담당하며 중앙부처 인적네트워크를 폭넓게 형성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석 기자 chadol@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이갑재 감사원 부이사관 내정



광주시는 "신임 감사위원장에 이갑재 감사원 부이사관을 내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풍부한 감사 경험과 전문성, 투철한 공직관, 리더십을 두루 갖췄던 책임자로 판단했다

광주시는 전했다. 이 내정자는 감사원 특별조사과 조사과, 기동감찰과를 거쳐 감사청구조사단 제3과장, 국방감사단 제2과장, 감사교육원 교수요원 등을 역임했다.

감사위원장은 진정·비위·청원 사항 조사, 감사 결과 처분, 부패방지, 공직기강 확립 등 감사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2년이며 총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시는 감사원과 임용 절차 등을 협의하고 4월 초 임명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소상공인 상하수도료·농업인 농기계 임대료 감면

광주시가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과 농업인의 농기계 임대료를 감면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27억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기준 업종 중 일반용, 육탕용, 산업용인 소상공인으로, 매월 사용량이 100㎥ 이하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3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50% 감면돼 부과된다.

사전 납부한 3월, 4월 요금은 5월 부과 요금에 감면액을 적용해 정산하고, 나머지는 6월 요금에 정산해 고지할 예정이다.

시는 또 영농철 농업인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를 4월1일부터 7월말까지 4개월 간 감면한다. 관내 농업인은 시 농업기술센터의 임대용 농기계 이용 시 일일 임대료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동일 기종의 농기계를 2일 이상 임대할 경우 이틀째부터는 임대료가 정상 부과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돈되는 부동산(NPL)과 실전경매

1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공개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19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채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 봄.

**2020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모집기간: 2020년 2월 1일~ 2020년 3월 19일
-교육기간: 2020년 3월 19일~2020년 6월 11일
매주 목요일 주간10:00~12:00 야간 7:00~9:00
-수강료: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H. 010-9416-1200, T. 062)230-7700-2

"공장부지 매매" (금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 공장용지 14,916.9㎡, 건물 998㎡(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 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사위장, 화장실 시설 구비
- 건물 일부 임대 중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약 700㎡)
- 매월 4백만원 이상 수입(임대료 및 태양광 수익) 태양광은 대출 없고 순수익 임

※ 매매가 25.5억 ※

인 하 건 설(주)
010-3605-0214
062)655-4840

지난 20년간 14,000여명이 수강한 명강의

불황기에 뜨는 부동산 경매와 재테크 강의

전임강사: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 전공)

전남대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평생교육공로: "교육부장관상" 수상
MBC-TV방송국 경제특강
공무원연수원 등 500회 이상 초청특강

특 전
자격취득 희망시 국가공인 빌딩경영관리사, 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자격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 후 모임체 결성하여 지도함

**강의기간: 2020년 3월~6월(15주)
정원: 선착순 50명 마감**

조선대 평생교육원
- 부동산컨설팅과 재테크 매주(수) 19시~21시
- 접수처: 062)230-7700~2

광주교육대 평생교육원(무료주차)
- 부동산 실전경매 매주(목) 19시~21시
- 접수처: 062)520-4243

**부동산강의 및 부동산경매 관련 상담
010-5613-1808 정영수 박사**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